

# '멀티 페르소나' 또 다른 나와의 동행

ISC 월간 웹진 '일과 사람' 18호에서는  
'멀티 페르소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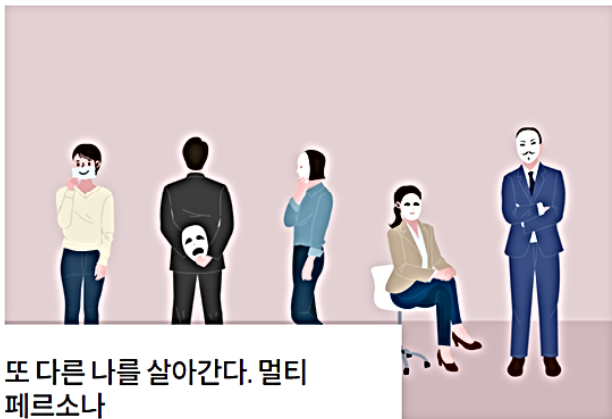


웹진구독신청하기



## 트렌드+

트렌드+ 포커스 업(美)



또 다른 나를 살아간다.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비평가 + 비평가



멀티 페르소나가 불러온  
산업의 변화

일학습병행제로 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다,  
부영CST(주)

트렌드+ 이달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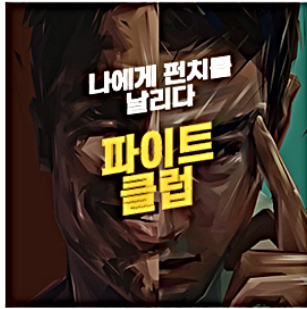


트렌드+ 이야기 + 비평가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부캐'가 뜬다

# 심표+

 <p>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나를 만나는 여행 '템플스테이'</p>	<p>업(業)로드</p> <p>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나를 만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Temple Stay</p> <p>자세히보기</p>	 <p>나답게, 그리고 우리답게 내 안의 또 다른 자아, 몰라본 잠재성을 찾다</p> <p>자세히보기</p>	<p>슬기로운 직장생활</p> <p>나답게, 그리고 우리답게</p> <p>자세히보기</p>
 <p>서정적인 나, 활동적인 나 다양한 당신을 위한 취미 생활리스트!</p> <p>자세히보기</p>	<p>생활의 발견</p> <p>서정적인 나, 활동적인 나 다양한 당신을 위한 취미 생활 리스트!</p> <p>자세히보기</p>	 <p>나에게 펀치를 날리다 파이트 클럽</p> <p>자세히보기</p>	<p>영화로운 ISC</p> <p>나에게 펀치를 날리다 '파이트 클럽'</p> <p>자세히보기</p>

# ISC+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사람투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힘이 되는 자격증

36만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독자참여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ISC웹진

ISC 웹진 리뷰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하기

포커스 업(業)

## 또 다른 나를 살아간다. 멀티 페르소나

###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멀티 페르소나 시대’

현대인은 하나의 개인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다. 회사원 A는 퇴근 후 구독자 몇만 명의 인기 유튜버로 변신하고, 대학생 B는 인스타그램 본계정 외에도 3개의 부계정을 운영하며 각 계정의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와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상황에 따라 삶의 방식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를 ‘멀티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말하며 ‘외적 인격’, ‘가면 쓴 인격’을 뜻한다. 여기에 ‘멀티-’가 붙은 멀티 페르소나는 ‘여러 개의 인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인 10색을 추구하며 멀티 페르소나 그 자체인 Z세대(1995~2005년생)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로 나와 문화, 소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멀티 페르소나 시대가 찾아왔다.

### 대세는 부캐 + 취향으로 헤쳐 모여!

멀티 페르소나를 다른 말로 ‘부캐(부가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방송문화계는 부캐가 대세다. MBC <놀면 뭐 하니>의 유재석은 유산술, 유르페우스, 유라색 등 자신의 다양한 부캐를 만들었고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는 안동 조씨 조지나를 부캐로 만들었다. 김신영은 둘째 이모 김다비가 되어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부캐들은 본캐(본래의 캐릭터)와 다른 인격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받아들인다. ‘여러 가지 자아’를 인정하고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놀이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콘텐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방송문화계의 부캐 열풍은 한동안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우리 일상 속의 문화도 살펴보자. 멀티 페르소나 세대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더해져 하고, 퇴근 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 예로 직장인 러닝 크루가 핫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퇴근 후 만나 한강을 달리고 쿨하게 헤어진다. ‘회사에서의 나’가 아닌 같은 취향의 페르소나끼리 모여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다.

베이킹, 그림 그리기, 가족 공예 등의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다. 낯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저녁엔 문화 활동을 한다. 또 다른 나의 생활을 위해서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길 바란다.



## 럭셔리와 가성비비의 공존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소비자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취향이 바뀐다. 이에 맞춰 소비 패턴도 변화했다. 럭셔리한 소비와 평범한 소비를 동시에 하거나, 특정한 한 가지는 값비싼 것을 사지만 나머지는 저렴한 것을 사는 등의 '양면적 소비 현상'이 생겼다.

이는 '양극적 소비 현상'과 다르다. 양극적 소비 현상은 고소득자는 고가 상품을, 저소득자는 저가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이지만 양면적 소비 현상은 한 사람이 고가 상품과 저가 상품을 함께 소비하는 것이다. 소득이 아닌 품목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다른 것인데, 옷은 SPA 브랜드에서 사지만, 가방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다거나 평일엔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주말엔 파인 다이닝에서 식사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양면적 소비 현상엔 가성비와 가심비가 공존한다. 가심비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성능이 만족스러운 것이며, 가심비는 가격은 비싸지만 마음(心)이 만족스러운 것이다. 다양한 인격에 따라 이 두 가지 소비 형식이 함께 일어난다. 단 가심비만을 지향하는 소비는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페르소나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소비 관념이 필요한 때이다.

## 개인 맞춤형 상품

멀티 페르소나 소비자는 이미 제작된 상품을 고르는 공급자 주도형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에 산업계는 여러 가지 인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생산이 트렌드다. 구찌(GUCCI) 온라인 단독 컬렉션에선 스스로 색과 이니셜을 골라 자신만의 가방과 신발을 디자인할 수 있다. 아디다스(Adidas)에선 스토어팩토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만든다.

이처럼 제조 방식이 주문한 후 조립하는 ATO(assembly to order)로 변함에 따라 공장이 아닌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커스텀하고 제품을 최종 생산한다. 산업 간의 영역을 나누지 않은 '제조-유통-물류'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 소비자가 다양한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다용도 멀티 제품도 인기다. 회사에서도, 퇴근 후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나 평일엔 업무용으로, 주말엔 게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 키보드 등이 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자신의 자아를 달리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은 꾸준히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안과 밖, 일상과 인스타그램 피드가 100% 한결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도나도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을 사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당신의 인격은 몇 개인가?

리포트 리뷰

## 멀티 페르소나가 불러온 산업의 변화

다양한 관계에서 생기는 멀티 페르소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속한 사회 또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가면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에 생산과 소비에 있어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 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구매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달라지고 있는 소비 패턴과 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산업계에 다가올 변화를 분석해 본다.



### 경영·회계·사무ISC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주 52시간 근무 체계를 통해 워라벨을 직장인들이 찾게 되면서 업무시간이 끝나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종일 업무를 위해 직장 동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근무하고 퇴근 후에 밴드를 즐기는 사람, 클럽을 즐기는 등 멀티 페르소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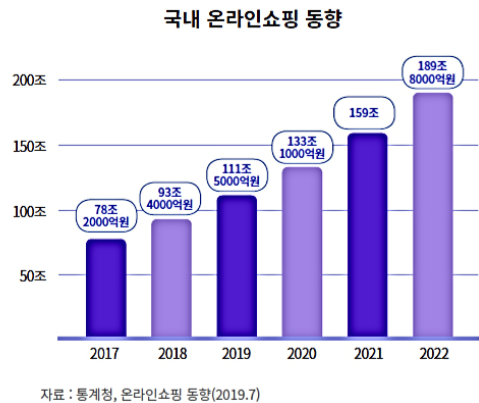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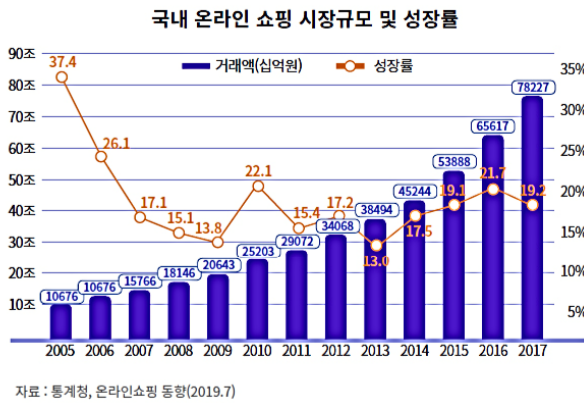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소비자의 소비 형태도 달라졌다. 일반적인 생산자 중심으로 생산되던 상품들의 소비 형태가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갔다. 이제 소비자들은 획일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춤형 소비를 즐긴다. 생산자들은 이에 다품종 맞춤형 상품을 소량생산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소통의 강화로 세계 어디서든 다른 나라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소량생산의 변화는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생산-판매하는 E2E(Everyone-to-Everyone)가 두각을 나타냈으며, 개인 가치에 중점을 둔 소비하는 개인 중심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겨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들은 더는 자신이 가진 부에 따라 소비하지 않으며, 가치에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저녁은 호화로운 식당에서 먹더라도 누구도 지적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양성을 즐기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에 각각의 페르소나는 녹아들어 있다.

## 섬유제조·패션ISC

###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직무 영역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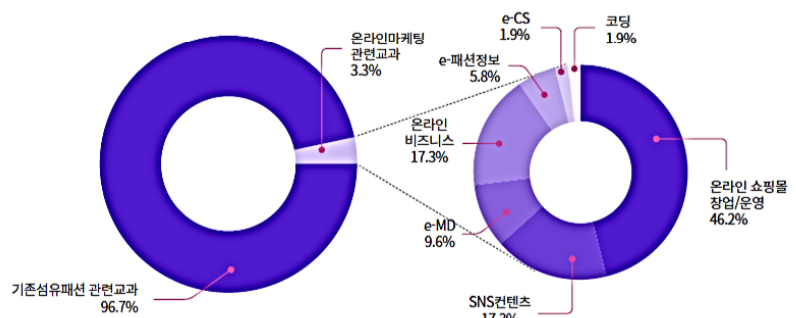
패션업계는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속한 그룹에서 개성을 나타내려는 멀티 페르소나적 니즈가 늘어나자 산업 수요와 직무 변화에 따른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섬유·패션 ISC는 전공자가 접근 가능한 직무에 대해 수요의 범위와 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격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겹쳐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패션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찾고 소비하는 형태가 대폭 늘어났다. 온라인 마케팅이 대두됨에 따라 섬유·패션 업계에서 온라인 유통, 디지털 콘텐츠 관련 인력양성과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패션 온라인 마케팅 관련 직무 변화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패션 온라인 마케팅은 웹 서비스 환경과 기업의 전략에 따라 직무 범위와 내용이 진화한다. 패션 전공자가 접근 가능한 직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교육이 중요할 것이라고 ISC는 강조한다.

### 전문대학교 섬유패션학과의 온라인 마케팅관련 교과현황

현재 패션 온라인 유통 형태는 크게 제조기업이 운영하는 자체 쇼핑몰인 자사몰과 타기업 상품의 유통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유통 전문 외부몰로 나뉜다. 자사를 온라인 마케팅조직의 주요 업무는 온라인 영업, 온라인을 기획(웹디자인, 상품 콘텐츠 디자인), 웹마케팅(디지털 마케팅), 홈페이지 개발(IT 플랫폼 개발지원), 물류 관리로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션 전공자일 경우 온라인 영업, 웹 마케팅 및 상품관리 직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성을 표현하고 여러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패션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패션은 어떤 산업보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산업이다. 전공자로서 멀티 페르소나 현상은 온라인 관련 직무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의 흐름을 읽고 전달함으로써 자신만을 위한 패션을 원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배가 된다. 각각의 개성을 또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패션의 창조와 유통까지의 능력은 현장에서 전공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 방송통신기술ISC

### 페르소나가 넘쳐나는 1인 미디어 시대

멀티 페르소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바로 방송 분야다.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크리에이터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얻은 명성과 인기는 전문 방송인을 능가할 정도로 대중에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로 선정될 정도로 크리에이터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직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1인 창업자 기준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는 소셜미디어 기획, 영상·음향 제작, 라이브 생방송 운용, 마케팅 및 채널 분석, 채널 운영의 단계를 거친다. 소셜미디어 업체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직무로는 소셜미디어 기획이었고, 2위로 영상음향 제작, 3위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순이다.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크게 작가, 행위자, 프로듀서라는 콘텐츠 기획·제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과 올인원의 특성을 가진다.

MCM(Multi Channel Marketing) 주요 업체 중 하나인 (주)트레저헌터는 크리에이터들의 미래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Seller(판매자)가 되고 나아가 Brand(상표) 그 자체가 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주)트레저헌터에서는 크리에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브랜드에 적합한 크리에이터 선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세정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크리에이터나 기존의 유명인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브랜드 측에서 게시하는 TV 광고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미디어 제작자가 되고 인플루언서로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콘텐츠 전성시대인 요즘, 방송·통신 ISC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휴대전화 하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다른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다른 세상 속에서 만인과 소통하는 자신을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

생활 속에 다양한 나를 존재시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면을 찾아가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무엇보다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다양한 상황 속에 자신만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즉, 멀티 페르소나는 소비 형태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곁에 깊숙이 들어와 삶과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다.

이달의 기업

# 일학습병행제로 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다, 부영CST(주)

부영CST(주)는 1999년 설립되었으며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다. -200°C의 액화가스를 저장·운반·이송하는 기술을 가지고 초저온 저장탱크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열 온수식 기화기의 액 유출 방지 장치와 폐열 냉각수를 이용한 액화가스의 기화 장치, 초저온 글로브밸브, 차압식 디지털 액면 측정장치 등의 기술 개발에 힘쓴다. 또 체계적인 품질관리, 관련 상품 다양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이끄는 인재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양성하고 있으며, 처음 시행했던 2014년부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 경력직 못지않은 신입 발굴의 기회

산업 특성상 제품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경력직원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은 경력직 채용이 쉽지 않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기술 습득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을 전수한다 해도 중간 이직률이 높았다. 부영CST(주)가 이에 대해 고민하던 2014년,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일학습병행제'를 제안했다. 경력직원에 버금가는 기업 맞춤형 신입사원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CST(주)는 2014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7명을 훈련했으며, 현재는 2020년 5월부터 3명이 훈련 중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 평가에서 지난 훈련자 전원이 합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부영CST(주) 일학습병행제만의 차별화된 점들이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자체 시스템으로 효율성 강화

부영CST(주)는 명장 기업이자 단독 기업으로, OJT(On the Job Training)와 OFF-JT(Off the Job Training) 모두를 사내 교육장에서 할 수 있다. OJT는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 OFF-JT는 이론 수업을 접목한 교육이다. OJT를 위해 사업장 내 공간과 장비, 시설을 확보하고 OFF-JT의 경우 비파괴검사, 특수용접과정, 고압가스 특정설비 등의 분야별로 교재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교육은 최등준 대표와 3명의 기업 현장 교사가 직접 한다. 기업 현장 교사 모두 부영CST(주)의 직원으로, 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내부 자체적으로 인력을 꾸렸다. 이들은 4년 이상의 경력자 위주로 선발했으며, 일학습병행제 교육도 이수했다.

산업 특성상 전수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기술 전달마저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지만, 부영CST(주)는 그러한 '뒷세'가 없다. 교육자가 가진 것을 1:1로 알려주면 훈련자가 배우고, 훈련자는 훗날 후배에게 알려준다. 계단을 오르듯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를 잘 시행할 수 있는 기업 속 학습 근로자는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기쁨도 얻는다.

## 고용 안정화와 제품 품질 향상, '두 마리 토끼'

부영CST(주)의 일학습병행제는 성과도 좋다. 먼저 '고용 안정화'다. 일학습병행제를 하면 평균 3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중간 이탈률이 높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었다. 각종 대회 출전과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학습 근로자의 성취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장기근속으로 연결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품 품질 향상'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의 단계를 거치는데, 과정을 끝내면 대부분의 훈련자가 중급 이상의 기량을 보유하게 된다.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하고,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다. 작업 정밀도가 높아져 불량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제품 품질 향상과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 멀티 페르소나 시대 속 다양한 전략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멀티 페르소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부영CST(주)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먼저 현장 인제는 계속해서 일학습병행제로 발굴한다. 내년에도 6명의 인재가 올 예정이다. 기량이 뛰어난 학습 근로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근로자는 전국기능대회에서도 상위로 입상하도록 도와준다.



다음은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이다. 가스기능사 자격증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 및 코치로 직업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공인된 기술자 배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 측에도 큰 이점이다.

현장 인재 외에도 근로자의 길을 여러 갈래로 터주고 있다. 부영CST(주)는 AS 인력을 키운다. 이는 사무실 생산 관리자. AS 인력은 기계에 대한 대처 능력과 운영 능력 등을 다양하게 갖춰야 하는 멀티 페르소나 인재다. 이는 3-6년 이상 경력의 인재를 대상으로 양성한다. 현장 노하우를 가진 직원이 사무직으로 일하며, 앞으로의 훈련자에게 진로를 열어주는 역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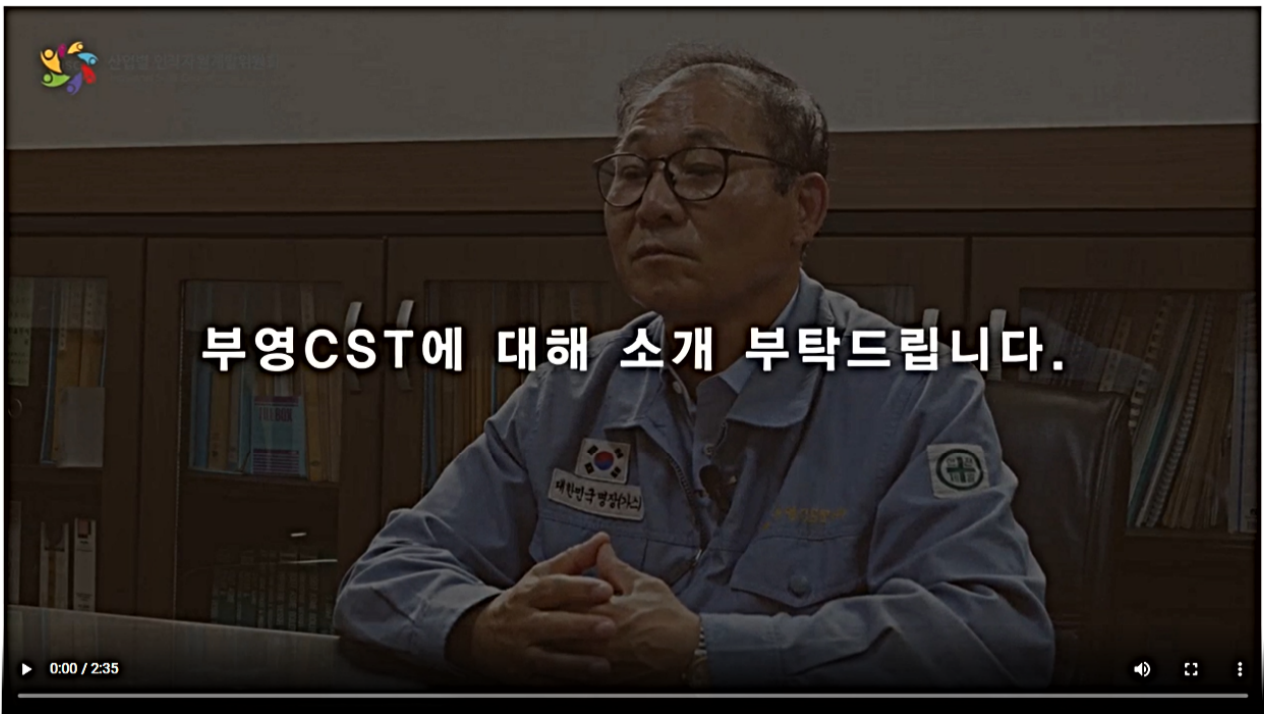
또 심화 과정을 원하는 자는 관련 계약 학과로 진학해 고급 관리자로 성장하게 한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고도의 생산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

직장과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과 학습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최고 기술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부영CST(주)의 일학습병행제 사례를 통해 그들이 이끌어갈 산업계를 기대해본다.

### mini interview

## 부영CST(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최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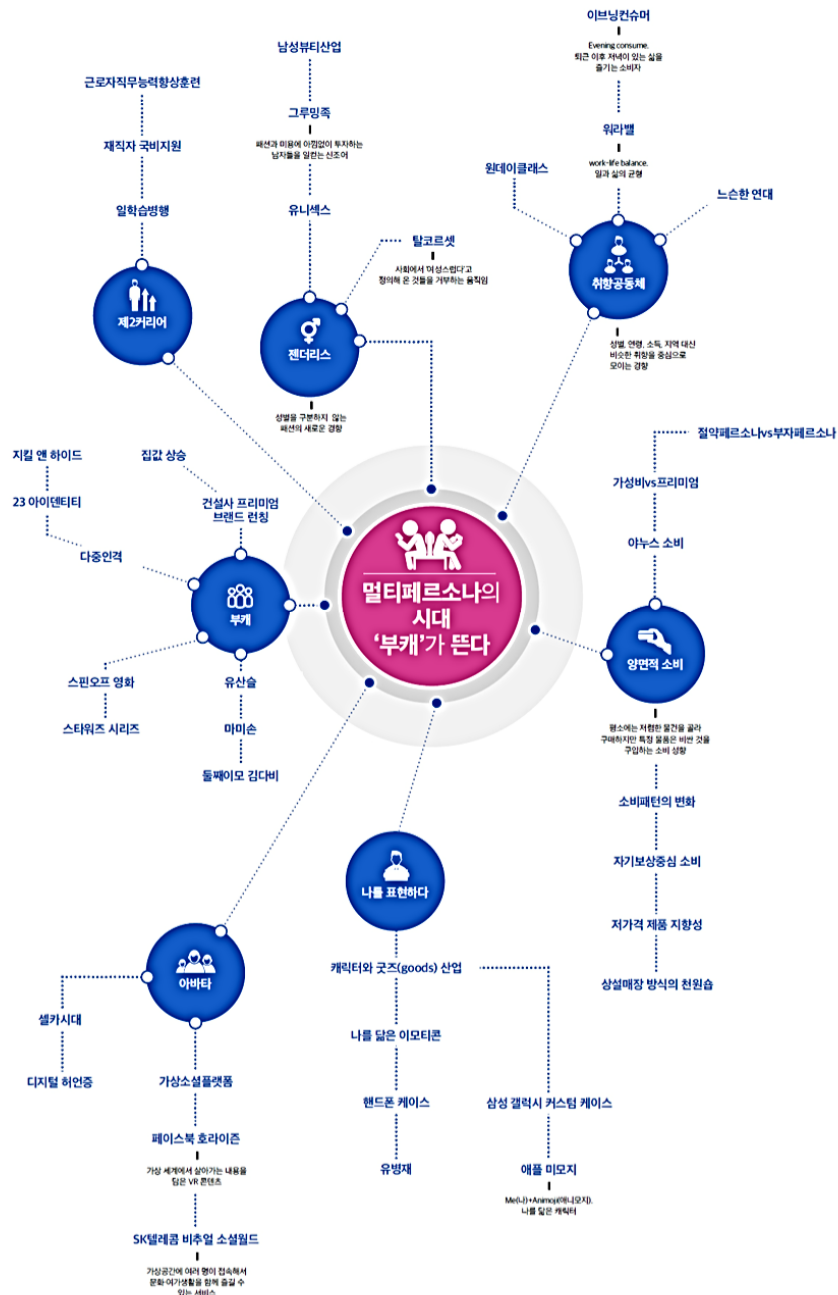
- Q**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A**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실무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을 향상하고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 무엇을 배웠으며,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 A** 회사에서 제작하는 탱크에 사용되는 도면을 배웠습니다. 도면 속의 기호와 문장을 통해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때보다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했던 용접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용접의 기본인 전류와 전압을 자세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으며, 불량 등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 Q** 일학습병행제 참여 전과 후, 만족도는?
- A** 저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를 하며 여러 가지 작업에 도전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니, 믿음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장한 저의 모습이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의식의 흐름

#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부캐'가 뜬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ㅂ서 공사가 다양한 요즘이다. 말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한 직장인 A씨는 6시가 되자마자 무선 이어폰을 쓰고 밴드 연습실로 향한다. 시종 한정 명품백을 들고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B씨는 중고 직거래 장터의 우수 판매자다. 집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직장에서, 동아리에서... 상황에 따라 수많은 '부캐'가 생성되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제2의 커리어를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과 느슨한 연대로 이뤄지고 있는 취향공동체까지.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표현하고, 향유하는 멀티 페르소나로 진화중이다.



업(業)로드

#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나를 만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Temple Stay

채우는 데 급급한 일상 가운데 바야흐로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다. 더위와 지친 맘을 고요한 사찰에 내려놓고, 비워낼 줄 아는 휴식의 공간과 시간을 누려보는 것은 어떤가. 재촉하지 않는 마음이 두세 뼘 넓어지고,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 무엇이 나인가, '참 나'를 새기는 참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사,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스님들과 수행자의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참선(參禪)일 것이다. 이는 선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무엇이 나인가와 같은 자기의 본래면목(本來面目)에 관심을 갖고 참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본성을 간파하기 위해 앉아서 하는 수행.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영원히 자유자재한 '참 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수행법이다.

다리가 저리고 졸음이 쏟아지는 걸 억지로 참으며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 그럴 때는 선방 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하는 수행인 '포행'을 할 수도 있다. 편안한 자세로 풍경도 들여다보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는 것이 참선이다.



## 108번 절을 하고 두 손바닥을 마주하는 합장



사찰에서 나를 찾아가는 또 다른 길은 108번의 절을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민이나 고통을 번뇌라 일컫고 이는 곧 집착을 뜻한다. 이러한 번뇌는 총 108가지로 열거하는데, 108배는 1배 1배 정성들여 절을 하며 내 몸을 낮추는 것이다.

자만과 남을 홍보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등 집착에서 기인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 겸손해 진다.

1배의 마지막 동작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붙이는데, 이것이 합장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합장은 '너와 내가 하나다. 마음과 몸이 하나다'라는 뜻을 가진다.

거만하고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열 손가락과 두 손바닥을 모두 합하는 동안 부산히 흩어졌던 상념들이 한 곳으로 향하게 됨을 체험한다.

## 이 안에 담긴 것을 다 먹으라, 발우공양

죽비가 세 번 소리를 내면 공양(식사)이 시작되며 발우(식기)를 내 앞에 가져다 놓는다. 큰 것부터 밥그릇, 국그릇, 물그릇, 찬그릇의 네 가지를 크기대로 차곡차곡 겹쳐놓았다. 다시 한 번의 죽비 소리가 나면 물과 밥, 국, 찬의 손으로 음식을 나눈다. 밥을 받을 때는 합장을 한다. 배분이 끝나면 다시 죽비가 세 번 쳐지고, 각자 공양을 시작한다. 발우에 담긴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한다.

공양이 막바지에 이르러 죽비 소리가 두 번 들리면 송늬를 돌리고, 송늬를 모두 먹고 나면 상을 물린 후 처음에 나눈 천수물로 발우를 씻고 깨끗이 닦는다. 흔히 절밥이라 불리는 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이 음식을 받기까지 수고한 이들의 공덕을 헤아리며 자신의 덕행을 살펴보고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 여름휴가 추천 템플스테이 여기서 예약하세요!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예약    커뮤니티    템플스테이 소개    마이페이지    ENG

검색어 입력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체크인/체크아웃 선택  
체크인    체크아웃

\* 운영중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템플스테이  
사찰정보  
지도를 클릭하여  
사찰정보 확인

Templestay VR  
사찰 VR을 경험해보세요.

템플스테이 예약

1.

### 제주도 약천사 체험형 템플스테이\_불자의 길

올해 여름휴가지 선호도 1위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 아니라면, 혹은 처음이더라도 색다른 제주를 체험하고 싶다면 제주에서의 템플스테이를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제주만의 특징을 살린 약천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뒤로 한라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한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진 곳에 있는 '제주스럽기' 그지없는 약천사는 울레 8코스에 있어 울레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는 곳으로, 울레길 걷기 명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2.

### 강원도 월정사 휴식형 템플스테이\_달빛 아래 휘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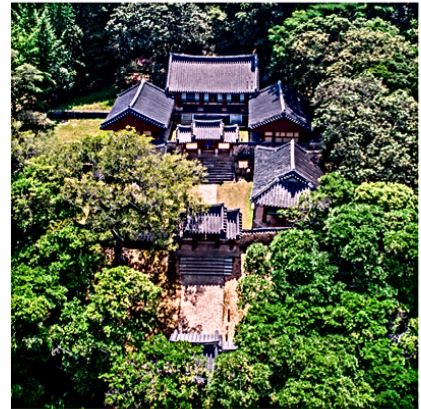
하늘로 뻗은 천나무 숲길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월정사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다. 바다를 면하지 않은 산중고원 평창, 동대 만월산을 뒤로 그 정기가 모인 곳에 들어앉은 오대산 월정사는 사시사철 푸르다. 월정사의 휴식형 프로그램은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명상하는 것, 예불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다. 온전한 휴식과 더불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 스스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찾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 전라도 완도 신홍사 장기 휴식형 템플스테이\_나 홀로 남도 섬 여행

창문 너머로 완도 앞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신홍사에서는 조용히 휴식하고 힐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기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다. 최소 10일 이상 30일까지 머물 수 있으며, 참가자들끼리의 교류도 거의 없어 그야말로 나를 위한 행복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청산도와 보길도 같은 주변의 섬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완도까지의 여정이 쉽지는 않으나, 그만큼 오래 머물며 온갖 고단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나답게, 그리고 우리답게



## 나답게, 그리고 우리답게

내 안의 또 다른 자아, 올바른 정체성을 찾다



재택근무 중 소속감 느끼는 방법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맞춰  
본인의 모습을 감추거나 바꾸며 생활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 멀티페르소나 (MULTI-PERSONA)

다양한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정체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자아의 가면



직장에서는 소극적인 나, 집에서는 요리유튜버로 변신!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짜 나는 누구인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요즘  
다양한 자아를 만나기 전,  
스스로 처한 환경에서 소속감을 고취시켜야 할 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로에 대해 알아 가기

나의 업무 공간을 자랑해보자! 소파 위이든, 그럴듯한 홈 오피스이든  
1m 넓이의 벽 바깥에 있는 공간을 보여 줘봐  
서로가 어떤 환경에서 업무를 더 잘하는지 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구!



내 책상에는 꼭 양초가 있어야 업무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통 관심사를 통해 관계 형성하기

읽어볼 책, 봐야 할 영화, 또는 추천할 요리법을 하나 골라 소개해 봐!  
서로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떠올리다 보면  
동료들의 참여 유도 UP! 친밀도 UP!



넷플릭스에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나도 추천해주라 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놀이의 장점 활용하기

친선 게임으로 서로 유대감을 쌓아보자!  
온라인 노래방, 퀴즈 대회, 디지털 형식의 보드게임,  
온라인 사이클 경주 등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자극을 경험해봐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ㅋ 우우~에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보자!  
아무리 바빠도, 서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니까!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 내일도 파이팅!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탄력적인 팀이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고 직장 동료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는 시간



사람이  
우선인 하루



조직력을  
유지하는 자세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의 발견

## 서정적인 나, 활동적인 나 다양한 당신을 위한 취미 생활 리스트!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많은 이들이 흥얼거리던 이 노래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일을 마친 후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찾아 떠나고 있다. 물론, 일할 때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이다. ‘착한 나’에서 ‘거친 나’로, ‘활발한 나’에서 ‘서정적인 나’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멀티페르소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취미생활이 급부상하고 있다. 몰랐던 나의 모습까지 발견하는 다양한 취미를 지금 소개한다.

### “구슬픔에 취한다. 서정적인 당신을 위해” 오카리나&칼림바



초등학생 때 빠질 수 없는 악기, 리코더. 리코더를 볼 수 있다면 오카리나는 거뜰하다. 세로로 리코더를 잡았던 손을 가로로 들어서 잡으면 된다. 쉬운 운지법은 물론 구슬픈 감성은 덤이다. 무엇보다도 6천 원부터 2만 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여기에 용호상박 악기가 있으니 바로 칼림바다. 오카리나만큼 작고 아담한 칼림바는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오카리나처럼 운지법도 크게 어렵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오카리나보다 더 맑은 소리를 내고 손으로 연주한다는 것이다. 내 안에 구슬픔을 꺼내 보이고 싶다면 칼림바를 추천한다.

“스마트한 당신을 위해”  
**독서는 물론 스피치연습까지, 책 수다 모임**



좀 더 스마트한 나를 만나고 싶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독서까지 할 수 있는 책 수다 모임만 한 게 없다. 독서습관이 갖춰지는 건 당연하고, 여러 사람과 책 수다를 떨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니 논리적인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 특히, 나의 의견을 말하고 피력하는 등 목소리를 내서 소통해야 하는 모임인 만큼 스피치 연습까지 할 수 있으니 1석 2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주제 없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모임이기에 더욱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책도 읽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싶다면 책 수다 모임에 참여해보자.

“나도 몰랐던 미술 감성이 폭발한다.”  
**쉬운 명작 그리기, 피포 페인팅**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영 소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 취미생활이 있다. 바로 명화 그리기라고 불리는 피포 페인팅(pipo painting)이다. 유명한 명화나 캐릭터 도안을 따라 채색하는 미술 DIY이다. 캔버스에 숫자가 적혀있기에 각 숫자에 해당하는 물감을 칠해주기만 하면 미술관에서만 보았던 명작을 내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 물론 느낌은 다를 수 있으나 명작을 따라 완성한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만족감이 든다. 색을 칠할수록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음의 안정감도 느낄 수 있으니 각박한 삶에 이만한 취미생활이 없다. 내 안에 숨은 미술 감성을 꺼내 보이고 싶다면 피포페인팅을 추천한다.

## “자연 친화적인 당신을 위해.” 나를 기다리는 반려 식물 기르기

WE STAY AT HOME  
: GROWING PLANTS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홀로 들어섰을 때 뭘지 모를 헛헛함이 느껴진다면, 이제 반려 식물을 기를 때가 됐다. 물과 햇빛,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속속 잘 자라나는 반려 식물은 종류에 따라 공기 정화, 인테리어 효과까지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식물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까지 선사한다. 나도 모르던 자연 친화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식물을 통해 따뜻한 위로까지 받을 수 있다. 초록빛 식물을 보면서 눈의 피로도 풀고, 기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으니 반려 식물을 위한 한 편의 자리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 “알고 보니 나도 뜨개질 마스터” 이젠 누구나 할 수 있는 취미, 뜨개질



고로 뜨개질이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이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취미가 됐다.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라도 동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뜨개질 마스터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색깔 중에 내 맘에 쏙 드는 컬러를 찾아 한 코, 한 코 색을 이어가며 뜨개질에만 집중해보면 어떨까. 머릿속을 떠다니던 업무와 고민이 차분히 가라앉고 뜨개질에 여념 없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모자, 목도리와 같은 상투적인 것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고 귀여운 소품들까지 다양한 튜토리얼을 만나볼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공짜 취미생활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부터 나도 운동이 재밌다!”  
**더 재미있게 더 건강하기 위한, 실내암벽 등반**



서정적인 나를 벗어나 활동적인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실내암벽 등반을 추천한다. 암벽 등반은 물론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다. 헬스나 요가 등 반복되는 운동 패턴에서 벗어나 홀로 암벽을 오르면서 지루하던 운동 패턴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암벽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의 성취감이 크다는 점이 다른 취미생활보다 더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일일 체험 비용은 각 센터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대로 체험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만큼 더 색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지친 일과와 업무를 잊고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다면 다양하고 특별한 취미를 가져보길 추천한다.

---

[사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셔터스톡]

영화로운 ISC

# 나에게 펀치를 날리다 '파이트 클럽'

“

인간은 자유로운 동물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 금수와 다르게 본능을 자유롭게 제어하며 이성적인 사고도 할 줄 아는 존재다.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들은 문명을 만들었고, 발전된 문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자유를 제약한다. 문명사회에서 본능은 억압되었으며, 감춰졌다.

”

[사진-네이버 영화]

최근 사람들은 몸 속 깊숙이 숨겨놓은 본능을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시키고 있다. 나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스스로 잉태하고 낳은 타인에게 위탁한다. 나와 똑 닮은 그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 바로 또 다른 나의 인격, '멀티페르소나'다. 평범한 회사원 '홍길동'이 퇴근 후 유투버 '올도국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평소에 10원 한 푼도 고민하며 쓰던 찻들이가 한 달에 한번 명품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어느 모습이 진짜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



1999년 개봉한 데이비드 핀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은 허위로 점철된 문명사회에서 분열된 본능을 통해 진실 된 자아를 되찾아 나가는 한 남자의 피비린내 나는 성장기다. 영화는 종종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연출로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환상임을 증명하면서도, 치밀한 연출을 통해 문제적 자아 '타일러 더튼'을 스크린 밖으로 소환하기도 하며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허문다. '책'의 이야기가 곧 관객의 이야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허상으로 짐칠된 생활은 한순간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그동안 허성을 쫓아 짐까지 설쳐가며 살아왔던 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자신을 속이기 위해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책은 내면에 숨겨뒀었던 야성을 발견하고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게 된다. 바로 '타일러'를 통해서다. 타일러는 책과 정반대되는 인물이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반항적이다. 문명사회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하듯 하지 않는다. 문명사회가 '하지마라'라고 하는 것들을 비웃듯 해버린다. 거리낌 없는 그를 책과 더불어 수많은 사내들이 동경하며 따른다. 피가 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짓고 환호하며 일상에서의 족쇄를 벗어던져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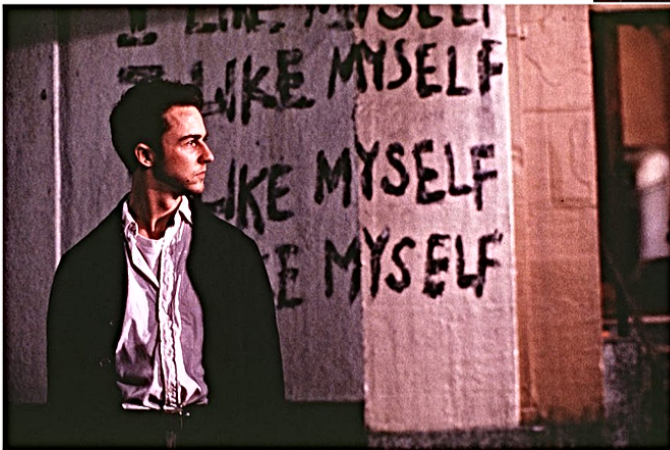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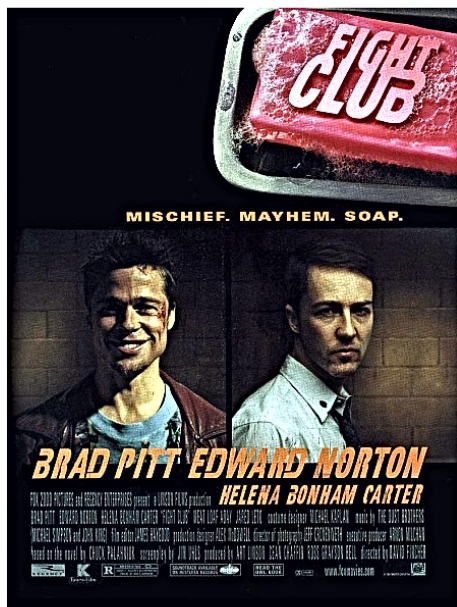
주인공 '잭'은 욕구불만에 시달리고 있다.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인이지만 늘 허전함을 느끼며 무언가를 갈망한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물질을 토해내 자신의 허기를 채운다. 온 집안에는 신상 집기들과 가구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왜 자신이 그것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는 묻지 않는다. 그저 허전함을 채우려 할 뿐이다. 그럼에도 '수면'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피곤하게 살아간다. 심지어 자신을 속여야만, 자신을 마주하지 않아야만 편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거짓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다. 거짓된 행위와, 거짓된 만족. 그마저도 쉽게 깨져버리는 불완전한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유와 해방을 선물했던 타일러에 의해 다시 한 번 족쇄가 채워지게 된다. 규범과 제도에 묶여있던 자신들과 싸워나갔던 사람들이, 규범과 제도에 직접적으로 펀치를 날리기 시작한다. 그들만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서 말이다. 그토록 경멸해하던 문명 속 세뇌가 자신들의 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잭은 자신이 또 한 번 스스로 만든 허상을 쫓고 있었음을, 아니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결국 잭은 자신이 증오한다 생각했던 말라의 손을 잡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허상도, 거짓도 없다. 한 발의 총알로, 수 십 개의 다이내마이트로 모두 날아가버렸기 때문이다.



---

누구나 한번쯤 자신의 낯선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다.  
평소와 다른, 혹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타인들은 낯선 나를 향해 말한다.  
'너답지 않다'

---

과연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를 단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가능한걸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감각된 인식은 왜곡되기 십상이고, 기억은 언제 잊혀 질지 알 수 없으며, 이성은 쉽게 흔들린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도 있는 이유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 자신이 반드시 하나여야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오히려 또 다른 자신을 가꾸고 키우는 시대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다양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날 닮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힘이 되는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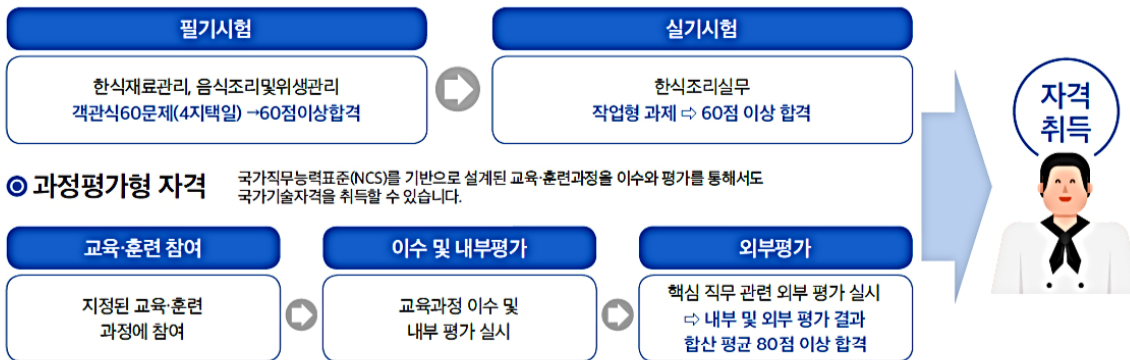
# 360만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360만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증을 알아보는 시간. 8월에는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맛있고 건강한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여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 ◎ 검정형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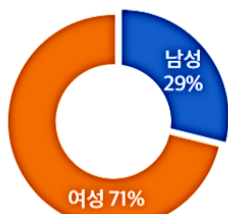


## 자격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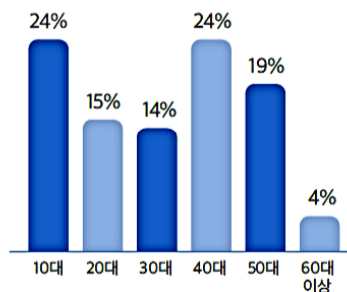
### ◎ 취득자 수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30,582명	28,072명	27,916명	22,914명	25,1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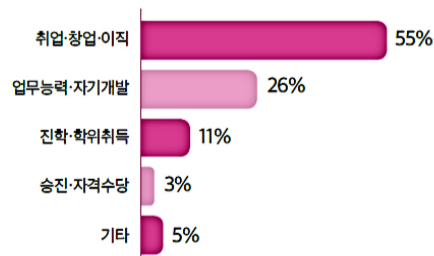
### ◎ 응시자 동향(2019년 기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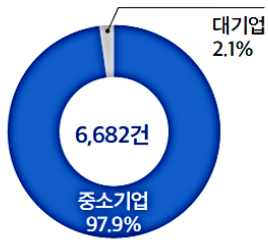
연령



응시목적

# 자격취득자 워크넷 구인현황 (www.work.go.kr, 2018년)

## ◎ 구인건수



## ◎ 채용 제안금액



## 우대 사항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리사의 면허 요건 및 채용(식품위생법)
  - 한식조리기능사 취득자에 대해 조리사 면허 발급(지자체)
  -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서는 조리사 자격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 공무원 임용 가점(공무원 임용 시험령)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 관련 직업 전망 (www.work.go.kr, 한국직업전망)

-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맞벌이가구, 혼밥족 등의 증가로 꾸준히 외식시장은 성장되고 있어 관련 종사원(조리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16년 약 990.0천명에서 2026년 약 1053.0천명으로 향후 10년간 고용은 약 62.0천명(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

TIP



한식조리기능사는 2020년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자격 내용과 평가방법이 보다 현장 직무에 가깝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넷: [www.Q-net.or.kr](http://www.Q-net.or.kr) / 씨큐넷: [www.C.Q-net.or.kr](http://www.C.Q-net.or.kr)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www.ncs.go.kr](http://www.ncs.go.kr)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청년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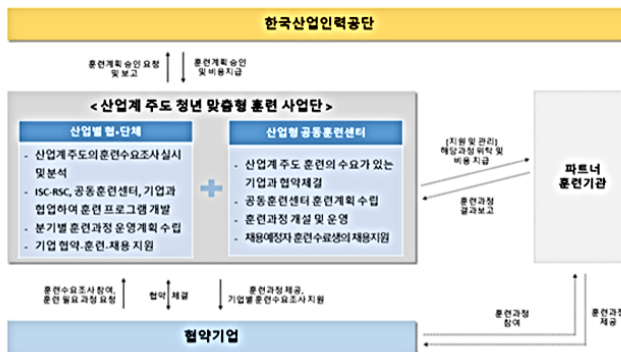
### 1. 사업목적

- 산업·업종별 대표성 및 전문성이 있는 산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훈련의 전 과정에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인력미스매칭 해소
- 산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함께 훈련 수요조사부터 훈련과정설계, 훈련실시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 운영

###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구성

- 산업별 협·단체 1개소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1개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



**(사업단 현황) 자동차, 관광·레저, 스마트공장 산업분야 등 총 7개 산업분야**

[2020년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사업단 현황]

(2020. 8. 10. 기준)

연번	산업분야	산업별 협·단체명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명	훈련과정 수(인원)		
				계	재직자 (향상)	채용예 정자
계	7개	7개	7개	78개 (2,587명)	57개 (1,662명)	21개 (925명)
1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개 (355명)	7개 (235명)	2개 (120명)
2	금형, 금속가공, 표면처리, 용접 (뿌리산업)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뿌리ISC)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20개 (445명)	14개 (325명)	6개 (120명)
3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17개 (397명)	16개 (272명)	1개 (125명)
4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4개 (240명)	1개 (120명)	3개 (120명)
5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4개 (240명)	3개 (120명)	1개 (120명)
6	스마트제조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아주대학교	15개 (510명)	13개 (390명)	2개 (120명)
7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9개 (400명)	3개 (200명)	6개 (200명)

**(훈련대상)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청년층\* 중심)**

\* 청년층 : 사업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훈련분야) 4차 산업분야, 신산업·신기술·고속련 분야 등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 정보기술, 스마트공장, 생산품질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등 16개 분야 78개 훈련과정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절차가 궁금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참조(<http://www.hrdkorea.or.kr/3/1/7/3>)

- 담당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산업별지원국 산업지원부(052-714-8752,8793)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정이 궁금하다면?]

HRD-Net 홈페이지 : 직업훈련정보 검색(공동훈련센터명·과정명 등, <http://www.hrd.go.kr>)

- 사업단별 과정 세부내용은 사업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